전남 해수욕장 … 해파리에 놀란 가슴 '바가지'에 멍든다

본격 피서철 … 환경개선·안전대책 엉망

생수·컵라면 시중가의 2배
민박·텐트 가격 정찰제 무색
해파리 백사장까지 밀려와
피서객들 안전 위협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남지역 유명 해수욕장이 고질적 바가지 상혼, 부족한 편의시설과 부실 안전 대책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전남도를 비롯해 해당 시·군은 친절과 청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피서객들은 불만투성이다.

◇고질적 자릿세 타령=피서철, 한몫 챙겨보겠다는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로 인해 빚어지는 고질적 바가지 요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아예 대부분의 물품을 현지에서 구입하기보다는 직접 가져가는 피서객들도 적지 않다.

27일 찾은 전남의 한 해변에서는 피서지라는 이유로 생수와 컵라면이 시중보다 2배 비싼 가격에 판매됐고, 해변에 텐트를 칠 때에도 자릿세를 내야 하는가 하면 숙박시설 가격도 표준 가격없이 집마다 제 각각이어서 피서객들 사이에 "속은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해파리 나와도 "알아서 놀아라"=기후 온난화에 따른 바다 온도 상승으로 해수욕장에 출몰한 해파리떼 대책 마련도 소극적이다.

27일 찾은 보성 율포해수욕장에서는 백사장과 해변 곳곳에서 보름달물해파리가 출현, 피서객들이 혼비백산하는 등 한바탕 소란을 빚었다.

지름 15㎝가량의 보름달물해파리는 독성은 없지만 쏘일 경우 통증과 피부 발진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 이 때문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에서는 그물형 유입 방지막을 설치한 바 있다.

하지만 보성군은 예산 등을 이유로 개장 이후에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해수욕장 안전 등을 맡은 여수소방 당국 등도 주의 방송만 내보내고 있는 형편이다.

학원생들과 함께 찾았다는 김문서(41) 씨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아이들을 물 밖으로 나오게 했다"며 "해경에게 대책을 문의했지만 해파리를 피해서 놀거나 물리고 난 뒤 찾아오라는 무책임한 답변만을 들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수상 구조장비 '미흡'=전남지역 65개 해수욕장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일제히 개장, 다양한 홍보 방안을 내걸고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유명 해수욕장을 제외한 일부 해수욕장의 경우, 경찰이나 안전요원이 상주하지 않거나 수상 오토바이 등 해상 인명 구조장비도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다.

목포해경의 경우 관할 15개 해수욕장 중 무안 홀통, 조금나루 등 5개 해수욕장에는 안전요원을 상주시키지 않고 있다. 물론, 수상오토바이·고속 제트보트 등의 장비도 갖추지 않았다. 해상 레저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전남지역 섬을 찾는 피서객들이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자칫 취약지역에서 발생할 인명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완도해경 관할 지역도 비슷해 14개 해수욕장 중 장흥 수문, 완도 금곡 등 9개 해수욕장의 경우 신속한 인명구조에 필요한 고속 제트보트나 수상 오토바이 등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곡해수욕장의 경우 2011·2012년 사망 사고가 발생했지만 안전 요원만 상주하고 있는 형편이다.

◇섬 관광 활성화 한다더니=섬 관광자원화 사업은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갖춘 섬을 '보물섬'으로 만들겠다는 전남도의 핵심 현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존 자원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지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관광사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영광군 송이도 주민들은 취약한 접근성을 해결하지 못해 매년 3000명이 넘게 찾던 관광객이 오히려 줄었다고 하소연한다.

물때에 맞춰 하루에 한 번만 운행되는 불편한 교통 때문인데, 영광군에 대책 마련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여태껏 해결되지 못했다. 송이도 이장 표재룡(67)씨는 "지난해만 해도 피서철을 맞아 15일간 배를 증편(1회→2회) 했는데, 올해는 관광객이 줄었다며 10일간만 증편키로 해 오히려 줄었다" 면서 "이러니 무슨 관광객이 늘겠냐"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나원참 〈8857〉 김종두

광주시 압수수색

광주지검, 수영선수권 유치위 사무실도 … 수사 이번주가 고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관련 '광주시 공문서 위조사건'이 이번 주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이 지난 26일 광주시청과 유치위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자료 분석을 토대로 처벌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같은 날 검찰은 '2019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유치와 관련 서류 작성 등 일체의 작업을 도운 컨설팅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컨설팅업체의 조언을 받아들여 위조했다"는 광주시 기존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김국일)는 지난 26일 오전 9시25분께 광주시 체육U대회 지원국 등에 수사관을 보내 유치 활동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체육진흥과장실 부속실, 유치위원회 기획총괄팀·사무국장실에서 오후 2시40분까지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같은 시각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별도로 마련된 유치위원회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낮 12시30분까지 사무총장실과 마케팅팀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사무총장 여비서의 업무일지, 정부 보증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진 마케팅팀 6급 공무원과 마케팅팀장의 스마트폰도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유치위의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양의 자료를 압수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한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비교분석하고 있으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온 국민이 궁금해 하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지난 26일 오전 세계수영대회 공문서 위조사건과 관련, 광주시청 체육U대회지원국장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정문을 빠져나오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등 전남도 선관위, 3명 고발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 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A씨 등 3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인 A씨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최근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선거구민에게 공연과 저서를 무료로 제공했고, B씨는 A씨를 위해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선거구민 80여 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A씨의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현수막 20장을 제작·게시한 혐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노회서 목사 면직처분 … 총회서 철회하면 면직결정 효력 상실

광주고법 판결

목사가 소속 노회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급기관인 총회에서 이를 철회할 경우 노회의 면직 결정은 효력이 상실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최근 광주중앙교회 임시당회장 조모 목사와 고모씨 등 3명이 채규현 담임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회출입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중앙교회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 고씨 등 3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피고 채 목사가 원고 교회의 당회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했음으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예심판결에 대해 총회 구성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유효한 절차가 행해지지 않은 채 그대로 종결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 각 예심 판결은 권징조례(제141조)에 따라 그 효력이 확정됐고, 전남제일노회 채 목사 면직 판결은 확정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채 목사는 지난 2010년 4월 광주중앙교회가 속한 노회인 전남제일노회에서 목사 면직판결을 받았지만 같은 해 8월 소속 총회에 상소해 "전남제일노회 목사 면직은 원인무효화하고 원상회복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조 목사 등은 "전남제일노회의 목사 면직이 확정됐기 때문에 채 목사는 광주중앙교회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는 출입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시향 근무평정 적법 광주시, 항소심 승소

광주시립교향악단(광주시향)의 근무평정에 반발한 단원들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근무평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근무평정이 부적격하다는 취지로 단원들의 손을 들어줬었다. 광주지법 민사항소 3부(부장판사 송기석)는 최근 김모(50)씨 등 광주시향 단원 15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장흥 물놀이시설 어린이 숨져

28일 오후 4시40분께 장흥군 안양면 한 물놀이시설의 성인 풀장(깊이 1m 가량)에서 물놀이를 하던 A(5)양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을 안전요원이 발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현장에 도착했을 땐 안전요원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으나 맥박·호흡이 없었고 심정지 상태였다는 게 119 구급대원의 설명이다.

A양은 이날 부모와 함께 물놀이를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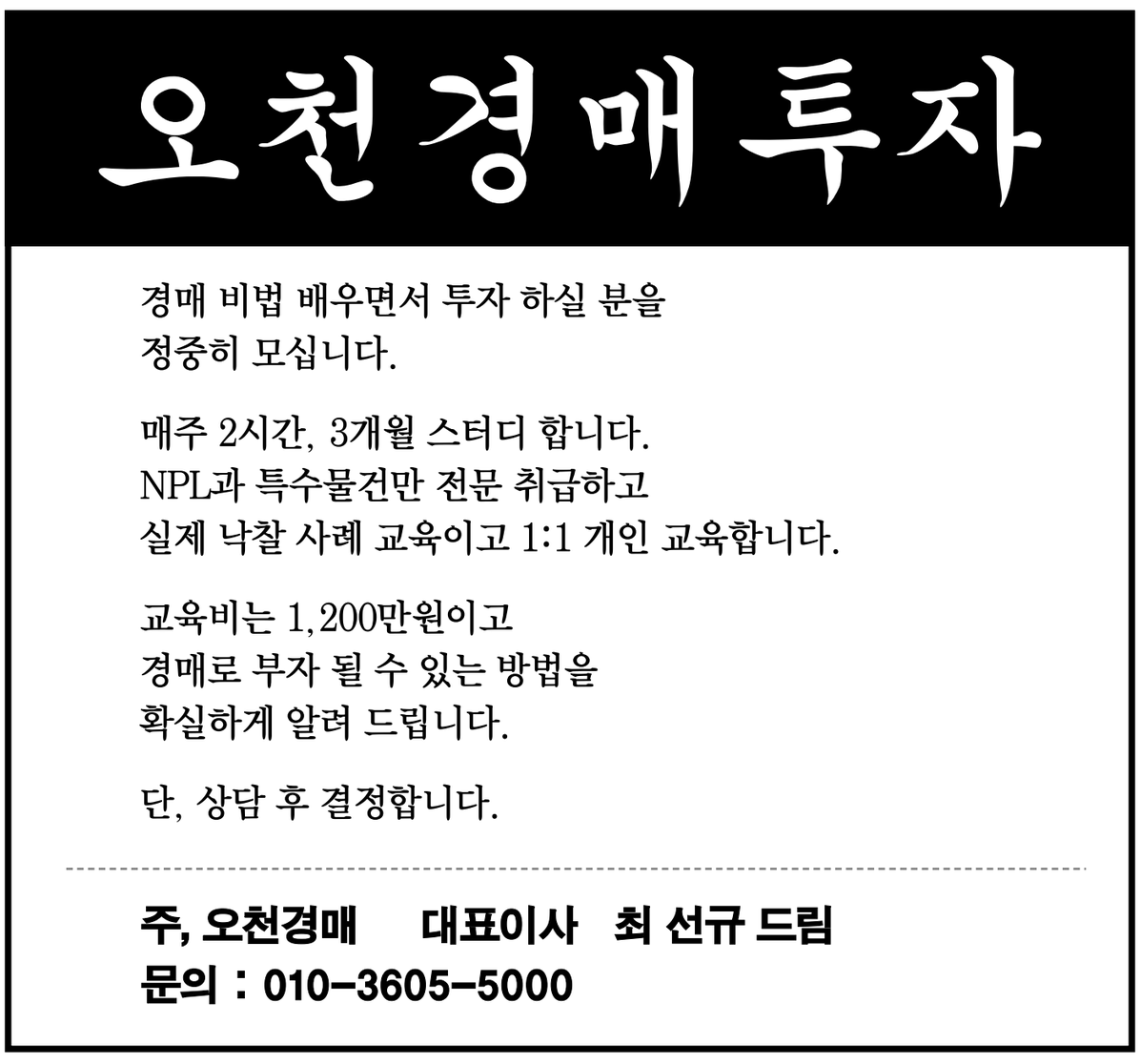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아내 상습폭행 40대 '삼진 아웃'

쌍나팔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가정 폭력 '삼진아웃'제에 적용돼 쇠고랑.

○…28일 함평경찰에 따르면 A(43)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께 함평군 대동면 자신의 집에서 아내(37)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지난 2011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는 것.

○…경찰은 최근 3년 안에 두 차례 이상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가정 폭력을 범하면 구속 수사토록 한 '가정폭력 사건처리 및 피해자 지원 지침'에 따른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

/함평=황운학기자 hwang@